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 탐방

학사일정

4월

- 10(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 면제 신청 마감
- 10(금) 1학기 종합시험 시행(5학기 이상 원생)
- 15(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13(월)~20(월) 2020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
- 13(월)~22(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 30(목) 석가탄신일(공휴일)

5월

- 4(월)~8(금) 1학기 중간고사
- 5(화) 개교기념일·어린이날(공휴일)
- 8(금)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5학기 이상 원생)
- 12(화)~14(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23(토)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 20(수)~6.5(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규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정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4월 5일(일)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65호(월간)

■ 초점

2020학년도 1학기 '초점' 지면은 '미래교육과 교사'라는 주제로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 특강을 진행한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



서정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새천년을 맞이한지 20년이 지났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 2020, 비전 2030이라는 슬로건 아래 20년, 3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 특히 교육의 모습을 내다보았다.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자동번역기, 전 세계와의 연결, 맞춤형 학습 등이 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많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각국이 이러한 비전들을 제시한 이유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함이었다. 국가의 경쟁력이 미래 인재 양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들을 앞다투어 추진해왔다. 그 예로는 교육혁신, 에듀테크, 디지털 전환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ICT 활용 교육을 시작으로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부상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기술의 잠재력이 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교육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필자는 사람을 향하는 기술을 도구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 증진을 목표로,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가를 지원하는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Ⅰ 도구: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교육적 활용 방안 찾기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민첩한 대응이 미래 교육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이다. 미국의 NMC(New Media Consortium)와 CoSN(Consortium for School Networking)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미칠 기술에 대한 5년간의 예측을 담은 호라이즌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교육·기술 전문가들에게 '어떤 트렌드와 기술이 향후 5년 내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졌고, 이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꼽혔다. 최근 2~3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 중국, 일본, EU 등이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인공지능은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전망과 함께 본 보고서에서 예측한 트렌

드는 심층학습법과 혁신 문화의 발전이다. 심층학습법은 실생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 학습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수단이나 도구로써 또는 새로운 해법으로 기능한다. 학생들은 문제기반학습, 도전기반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의 형태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체험, 실패, 재도전, 성취감 등을 경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다. 혁신의 광범위한 확산은 여전히 도전 과제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례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Ⅱ 방향: 직접적인 행함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역량 증진하기

역량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할 줄 아는 수행 능력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중심을 잡고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길러주고자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교육과정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새로운 교육 비전'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 16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일상 과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6가지 기초 문해력, 복잡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4C 역량, 인성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중 인성 영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으

로 정의되는 사회·정서적 역량으로, '호기심, 주도성, 인내·끈기,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인지'가 이에 해당한다. 21세기의 인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세대의 교육 방향은 핵심 주제로 학생이 지니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학생이 아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실행과 구현 과정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Ⅲ 액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소셜임팩트 창출 프로젝트

위 2가지 방향의 구체적 구현의 예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의 기술역량, 사회적 역량, 솔루션 구현 역량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텔은 2018년 인공지능 준비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시작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AI 윤리, 포용과 편견 이슈,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AI 소양교육이 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세우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역량과 솔루션 구현 역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및 협업 등의 사회적 역량이 4단계의 학습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소셜임팩트 창출을 위한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발굴과 정의 과정에서 전 지구적 관점을, AI 기술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교사는 제공된 가이드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배운다.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에 고무되며, 자신의 존재감과 자긍심의 고취를 경험한다.

영향력이 큰 신기술을 염두에 둔 대비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다. 이는 기술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학생들의 미래도 달라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고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교육대학원 중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
“양성 정원 현행 유지 확정”

-2015년도 교원 양성기관 평가-

입학원서 접수 4월 13일(월) ~ 4월 20일(월)

제출서류 우편접수 4월 13일(월) ~ 4월 22일(수)

구술시험 5월 23일(토)

모집전공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정보, 교육행정및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 * 표시는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 표시는 국립어학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발급

문의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0, 1379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및 대응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월 23일(일)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4월 6일(월)로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기업들 또한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개인 또한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이의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3월 25일(수) 기준 확진자 9,137명, 검사진행 14,278명, 격리 해제 3,730명, 사망자 1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앞서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당초 3월 2일(월)이었던 개학을 3월 16일(월)로 2주 연기한 바 있다. 또한, 개강 후 첫 3주 이상 온라인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학우 및 원우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다중 이용시설 및 집단행사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특강 및 교육봉사 세미나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0일(금) 진행 예정이었던 2020학년도 1학기 1차 응급처

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한 취소되었다.

아울러 4월 10일(금)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 1학기 종합시험 또한 변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4학기 이하의 원생은 4월 10일(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즉, 4월 10일(금) 종합시험은 종합시험 기신청자 가운데 5학기 이상의 원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자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 받아야 교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시험일 이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시험 당일 이를 제출해야만 한다. 종합시험 기신청자 가운데 4학기 이하 원생은 6월 초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인 추가 종합시험 일정에 따라 응시하면 된다.

도서관도 조정 운영하고 있다. 중앙/과학/CDL/법학/대학원 열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 토·일요일은 휴실한다. 개방 열람실 2,803석의 경우 25%로 제한하여 배정 중이며, 열람식 좌석 미배정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과학/CDL/법학/대학원 멀티미디어 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이 외에 중앙광장,

하나스퀘어 열람실, 전체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 CCCL, 국제기구자료실은 모두 휴실 중이다.

체육시설도 3월 1일(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대상 시설은 화정체육관, 하나스퀘어, 4.18기념관 헬스장, 아이스링크장 4곳으로 미사용 기간은 추후 개강 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박물관 전시실 또한 2월 26일(수)부터 잠정 기간 휴관 중이며, 학내식당은 동계방학 시기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식당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특별휴학이 허용된다.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다. 휴학신청은 각 소속 학과 행정실에서 오는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3월 31일(화) 오후 5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4월 1일(수)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된다.

안수진 기자 dksinwls61@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수업 실시

지난 3월 21일(토), 3월 28일(토), 4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1~3차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수업’이 현장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다. 이수 일정은 3월 26일(목) 블랙보드를 통해 수업 영상과 함께 공지되었으며, 공지 후 실습생 전체에게 문자가 발송되었다.

1차 특강으로는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의 ‘수업지도안 작성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2차 특강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엄영진 교사가 ‘학생의 이해와 생활지도 및 상담 기법’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원생 및 학생들의 수업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해 이수 기간을 제한하거나 퀴즈 등이 운영될 수 있다. 정확한 이수 방법은 영상 제공과 함께 블랙보드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되므로 실습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생은 사범대생 342명, 교육대학원생 142명,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38명으로 총 522명이다.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협력학교 실습 기간 변경

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이번 학기 협력학교의 실습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학교 배

정을 받은 원생 및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내용	학교	내용
강동고	3.12.(목) 실습 기간 변경 20.04.01.(수)~20.04.28.(화)	예일여중	3.4.(수) 실습 기간 변경 20.04.13.(월)~20.05.08.(금)
		원목고	실습 기간 변경 예정 (5월) * 확정 시 문자 안내
	3.20.(금) 실습 기간 변경 20.04.06.(월)~20.05.01.(금)	유한공고	3.6.(금) 실습 기간 변경 20.05.11.(월)~20.06.05.(금)
경희고	실습 기간 변경 검토 중	정신여중	3.9.(월) 실습 기간 변경 20.04.06.(월)~20.05.01.(금)
경희중	3.17.(화) 실습 기간 변경 20.05.04.(월)~20.05.29.(금) * 예비소집: 20.04.29.(수) 15:00 미술실(5층) ※소집일 결석 불가	중앙중	3.6.(금) 실습 기간 변경 20.05.18.(월)~20.06.12.(금)
고려대 사대부고	3.11.(수) 실습 기간 변경 20.05.18.(월)~20.06.12.(금) * 보건 과목 실습생은 기존 기간 유지	청원고	3.10.(화) 실습 기간 변경 20.04.13.(월)~20.05.08.(금)
고려대 사대부중	3.16.(월) 실습 기간 변경 20.05.18.(월)~20.06.12.(금)	하계중	3.10.(화) 실습 기간 변경 20.04.06.(월)~20.05.01.(금)
구현고	실습 기간 변경 예정 * 확정 시 문자 안내		3.18.(수) 실습 기간 변경 20.05.04.(월)~20.05.29.(금)
석관중	3.3.(화) 실습 기간 변경 20.04.20.(월)~20.05.15.(금) * 별도 OT는 진행하지 않음 실습 시작 전 관련 사항 문자 발송	한산중	3.6.(금) 실습 기간 변경 20.05.04.(월)~20.05.29.(금) * 4월 29일(수)에 OT 진행 예정 정확한 일정 및 정소는 별도 안내
	3.9.(월) 실습 기간 변경 20.04.13.(월)~20.05.08.(금)		3.17.(화) 실습 기간 변경 20.04.13.(월)~20.05.08.(금)
예일여고	3.20.(금) 실습 기간 변경 20.04.20.(월)~20.05.15.(금)	한영중	

※ 위의 일정은 3월 18일 기준이며, 개학 일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 (02-3290-1333-1335)에서 확인해야 함.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

지난 3월 19일(목) 오전 11시부터 3월 20일(금) 오전 11시까지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래 이번 교육봉사 세미나는 3월 21일(토) 13시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는 신청자에 한하여 앞서 언급된 해당 기간에만 수강할 수 있었다. 세미나 수강 시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강의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봉사 세미나의 경우, 24시간 내로 수강자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이수하면 되었으므로 수강자에게 보다 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또한, 온라인 수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평일 수강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이수는 고려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인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신청자가 블랙보드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 수강’ 탭을 클릭하여 세미나를 시청한 뒤, ‘퀴즈’ 탭을 클릭하여 참여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퀴즈를 완료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신청자는 ‘이수 확인’ 탭에서 이수가 완료되었음을 바로 확인 가능했다.

한편,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고 사범대학 교직원실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일지를 수령해야 한다.

본교 사범대학은 매년 4회의 교육봉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교육봉사 전 충분한 사전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봉사 세미나를 미이수하고 교육봉사를 나가면 기 진행한 교육봉사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또는 교직원에게 전화(02-3290-1335)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2019학년도 2학기 명강의상 수상자 발표

본교 교육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모든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자들의 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수 12명에게 명강의상을 수여해왔다. 수상자는 수강인원이 8명에서 19명 이하, 20명 이상인 강의로 분류하여 선정되었다.

본래 명강의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이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2019학년도 2학기 명강의상 시상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교내 집단행사 자제 요청에 의해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상패와 부상은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면으로 요청한 수상자 대표 인터뷰에서 신창호 교수(교육사철학전공)는 “강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

께 가꾸어가는 지식 소통의 시공간입니다. 논쟁적 대화를 통해 탐구 내용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 협력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상자	수강인원	전공	과목명
박종훈 교수	수강생 8~19명	체육교육전공	학교체육기반스포츠영양교육
신창호 교수		교육사철학전공	인성과교육의지향
이성순 교수		교육대학원	지식기반사회와평생학습
이승연 교수		한국어교육전공	응용한국어학연구
임정하 교수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연구방법론II
현영섭 교수	수강생 20명 이상	평생교육전공	학습공동체론
박태자 교수		교육대학원	공동영어
서아립 교수		수학교육전공	위상수학
장미정 교수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재연구및교수법
정재립 교수		국어교육전공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조대연 교수		평생교육전공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최원설 교수		기업교육전공	평생교육론

※ 수상자 이름은 가나다 순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4월 10일(금) 오전 10시부터 4월 14일(화) 오후 11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제1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이 이루어진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필히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교내 포털에 로그인한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적·인성검사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검사일자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원에 따라 아래의 시간은 조

정될 수 있으며, 2020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 가운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미응시 학생이 있을 경우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시간은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며 대기 장소 및 응시시간 안내는 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내용은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편, 적·인성 검사는 학기별로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불참할 경우 해당 학기 선발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inwls61@korea.ac.kr

〈신청기간 및 검사일자〉

차수	검사일자	시간(예정)	신청기간
1	2020.04.24.(금)	14시~17시	2020.04.10.(금) 10시 ~ 2020.04.14.(화) 23시
2	2020.05.16.(토)	10시~14시	2020.05.01.(금) 10시 ~ 2020.05.05.(화) 23시
3	2020.06.12.(금)	17시~20시	2020.05.29.(금) 10시 ~ 2020.06.02.(화) 23시
4	2020.07.10.(금)	14시~17시	2020.06.26.(금) 10시 ~ 2020.06.30.(화) 23시
5	2020.07.24.(금)	14시~17시	2020.07.10.(금) 10시 ~ 2020.07.14.(화) 23시

교육과 이슈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뭇이 중헌디”



임혜정
서정중학교 교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은 아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실 속에서 ‘포기’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중학생은 각각 4.1%, 11.8%, 3.3%, 고등학생은 4.0%, 9.0%, 3.6%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었습니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초1부터 고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 기초학력 진단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맞춤형 보충 학습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기초학력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기반해 매년 3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선정하고 지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각 교육 주체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봅시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습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오랜 시간 학교생활을 하여,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다시 학습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마련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서 낙오된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초학

습 부진 학생이 스스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모는 어떨까요? 기초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제 둘째는 기초학습 부진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기꺼이 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로서 공교육을 신뢰하며 담당 선생님께 힘을 실어주고 싶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학교 기초학습 부진 수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 친구 엄마는 저를 매우 한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를 왜 그런 데 보내요? 그런 데 가면 뭘 배우기는 한대요? 대중 완전 쉬운 것만 좀 가르치다 말겠쥬. 괜히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는 애로 찍히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학원에 보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한 기대치만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교사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학생을 지도하면서 제 가장 큰 임무는 ‘도망간’ 학생을 붙잡아 오기였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 명단을 확인하고 이 아이들을 학습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포부로 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부진 학생들이 극적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지 않는 학생에게 계속 전화해야 했고, 때로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나중엔 제발 와달라며 통사정을 하거나 이것만이라도 하자며 품나지 않는 타협안을 내밉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아닌데...’ 하는 고민이 이어집니다. 그때 담당 부서로부터 지도 시수를 채웠는지 확인해 달라는 재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현장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바라보는 학생, 가정, 교사의 각기 다른 시선 속에 공통점이 보입니

다. 모두에게 기초학습 부진 학습 지도가 학습부진을 극복할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가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공문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정책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학생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기초도 없이 학교에 보내냐고 학부모에게 말해 보는 것이 능사일까요? 물론 어떤 부모는 자녀의 학습 부진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구조, 경제력, 부모 학력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자녀의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투자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부모가 교육적 개입을 하더라도 부모 배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도가 하위 20%였던 학생들의 이후 성취도 변화는 어머니 학력에 따라 상이했습니다.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달리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만 자녀들이 저성취 수준을 탈피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도 실질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영화에 나와 유행했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뭇이 중헌디.” 학습된 무기력으로 학습 동기를 잃은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교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과 다짐만으로는 어느 순간 지치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교사는 손을 빼고 싶은 유혹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

니다. 따라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정책에서 가장 ‘중한 것’은 교사 지원책입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법 정보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고 학습 습관 및 태도를 교정하는 심리치료를 병행할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학습 부진 학생으로 선정된 거부감과 낙인의 우려로 학교 교육에 소극적인 부모님을 위한 상담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학습 부진 학생 관련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지도 방안을 교실에서 실제화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교사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지도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교사의 학생 지도 경험에서 나온 정책 수정 방향이나 새로운 정책 제언에 귀 기울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기가 수월합니다. 한편, 담당 교사가 학생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합당한 보상 체계도 필요합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에 ‘뭇이 중헌디’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바라는 책임감과 바람은 없고, 공문 속 이수 시간만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교사로서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시스템, 정책을 탓하지 않고, 저 먼저 학생들이 공정하게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다짐으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다만 저만의 힘으로는 이 다짐이 흔들릴 수 있으니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육 가족들의 지원을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학습 부진으로 울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교사의 중요한 본분을 되새기며 조금 늦어진 개학을 맞이해 봅니다.

교육단신

교육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유아, 학생, 교직원 안전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2020년 교육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변화다운 변화를 만들고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업무의 중점으로 두고 있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핵심 정책을 통해 구현하는 한편,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추진 등을 통해 사회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2020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 유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마을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 5천 명까지 확대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를 완료하여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한편,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열화된 고교교육 체제를 일관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함과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여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교육부는 이를 2025년까지 전체 고교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더불어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를 신규로 선정·지원하여 고교교육 혁신을 도모한다. 또한, 600개교 교실 및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미래형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 인재 국가장학금 244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 장학사업(인문 100년, 예술·체육 비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2억 원을 증액하여 244억 원을 지원한다. 본 장학금은 사업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학기당 200만 원씩 생활비(유형·학기당 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기당 200만 원 추가 지원)를 지원한다.

인문 100년 장학금은 2020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00명(1학년 600명, 3학년 900명)을 신규 선발한다.

한편,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440명(1학년 176명, 3학년 264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2020학년도 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는 2019학년도 640명에서 2020학년도 1,94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 확대하여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 우수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 성적, 학생 역량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대학 추천 순위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유형(유형)과 등록금만 지원하는 유형(유형, 산설)으로 장학생을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장학금 지원 구조를 개편하였다.

아울러,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의 경우 신규 선발 대상을 기존 3학년(2년 지원)에서 1학년(4년 지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선발 연도 1회에 한해 150만 원 지원하던 생활비를 졸업 시까지 학기당 200만 원씩 지원(유형)하는 등 장학금 지원 내용을 인문 100년 장학금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인문 100년 장학금 또는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3일(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학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5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지원 신청을 위한 방법과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2020.02.21.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생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인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국고 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취약계층 선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과 학문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경험하는 금융사회화에 대한 이해



정영선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개인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인 사회화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 등 다양한 사회화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화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정치사회화, 경제사회화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 글은 금융 영역의 지식과 태도, 기능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금융사회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경험한 금융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은 가족이다. Moschis 등 다수의 학자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금융 행위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직접 경험), 부모의 금융 행위를 보여주면서(간접 경험) 자녀의 금융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므로 가족에 의한 사회화를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렵다.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며, 다른 금융사회화를 경험한다. 시설의 청소년은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시설에서 성장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을 퇴소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기관은 또래 집단, 직장, 학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금융 영역의 사회화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이들은 금융사회화를 경험하면서 금융지식과 기능, 태도를 학습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이 연구

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퇴소한 다섯 청소년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이 금융사회화의 과정을 어떤 사회화 기관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해 왔는가를 탐구하였다. 아래는 사회화 기관별로 정리한 연구 결과를 첫째, 사회화 기관과의 상호작용, 둘째, 경험의 형태(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한 금융사회화

“아빠가 엄마를 약간 폭행도 하고, 우리한테도 그러고, 아빠가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주위에 신고하기 전에 아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월세방에 동생이랑 둘이 방치되었다가 쫓겨났는데. (피면담자3)”

“(부모가) 핸드폰 요금도 밀려가지고, 막, 아직 제가 초등학교생인데, 제 명의로 핸드폰 새로 파가지고, 제 것도 밀려났거든요. (피면담자4)”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같이 가족 간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에서는 금융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부모의 금융 행위를 관찰하여 학습하는 간접 경험에 의한 금융사회화는 시작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Ⅱ 또래 집단 및 직장과의 관계를 통한 금융사회화

“(일하는 곳의) 직원 누나가, 내가 만약에 너, 지금의 너 나이였으면, 지금 와서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너 나이 때 적금을 못 들은 거다. (중략) 네가 뭘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 (피면담자1)”

“(아르바이트 시작한 것은) 꾸미고 싶은데, 그런 걸 사주지 못하니까 아빠가. 그래서 항상 친구들 거 빌려 입

고 그랬거든요. 이 옷 좀 빌려줘, 저 옷 좀 빌려줘.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중략) 그런 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쓰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 같아요. (피면담자5)”

또래 집단과 직장과는 주로 직접 경험을 통한 금융사회화를 경험하지만, 직접 경험이 아니라도 서로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 행위를 학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예산 관리, 저축과 투자 등의 주제가 빈번하게 다루어져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학습이 나타났다.

Ⅲ 학교와의 관계를 통한 금융사회화

“돈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화면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피면담자1)”

“어떤 교육을 받아도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내가 겪어봐야 이제 아는 거지 아니면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피면담자3)”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학교는 의미 있는 사회화 기관이 아니었다. 학교 구성원과 퇴소 청소년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학교는 무의미하거나 잠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금융사회화 과정에서 무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아동복지시설과의 관계를 통한 금융사회화

“(시설 교사가) 특히 저한테 많이 그러셨죠. 연구자가 없으니까. 쓰는 건 쓰고... 쓰는 건 좋은데 돈을 좀 모으면서 쓰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후략) (피면담자2)”

“근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너 상황

이 이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주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니까 무조건 저축해라, 너 돈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느낌? (피면담자5)”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다수의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므로, 소수의 교사가 한명 한명의 청소년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거나 금융에 관한 직접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교사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저축에 대해서는 퇴소 청소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유의미한 금융사회화 과정을 위한 제언

시설의 퇴소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직장에서 직접 경험, 그리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간접 경험을 통해 금융사회화를 경험하였고, 가족, 학교,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경험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과정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공적인 기관이 가족의 부재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과정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금융사회화 기관은 시설 청소년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둘째, 청소년이 금융에 관련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셋째, 학교와 시설에서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실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신문 문화평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2019)

* '미안해요, 리키'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리키(2019)’의 켄 로치 감독은 1936년생의 노장이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 번 거머쥔 바 있는 거장이다. 그에게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은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였다. 두 번째 수상작이자 ‘미안해요, 리키’의 전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영국 복지제도와 관료주의의 허울을 꼬집는 내용이였다. 두 영화뿐 아니라 감독의 50여 년간, 그리고 4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는 하층 노동자, 이민자 등 ‘다수이지만 소수인 이들의 삶이었다. 언제나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이에 맞서는 저항, 그리고 연대의 삶을 팝진하게 그려온 그에게 ‘블루칼라의 시인’이라는 별명은 너무나 적절해 보인다.

항상 관객들에게 당대에 밀착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감독이 가장 최근작인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건 ‘킵 이코노미(기업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된 경제 형태)’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리키는 배수, 배판, 굴착, 목공, 무덤 파는 등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본 노동자이다. 그는 원래 건설회사 직원이었지만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 해고되고 은행이 도산하면서 지연된 ‘내 집 마련’의 꿈을 잡기 위해 버둥거리는 인물이다. ‘자존심이 있죠.’라 말하며 실업 급여를 거부하고, 또 누구보다 부지런하다고 자부하는 그는 ‘프리랜서 택배기사’가 된다. 직원이 되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회사와 계약하고 자신이 처리한 물량만큼의 금액을 가져가

는 성과제는 그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리키는 곧 자신에게 ‘자유’나 ‘정당한 대가’는 여전히 ‘내 집 마련’만큼이나 먼 꿈을 알게 된다. 프리랜서이기에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배송기사의 책임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라도 일을 쉬려고 하면 물량은 대기 중인 다른 기사에게 넘어간다. 하루에 돌본 가정의 ‘건 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간병인인 아내 애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돌봐야 할 이의 사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 혼자서 거동도 못하는 노인이 한밤중에 호출을 하든 그것은 ‘건 수’에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하루에 처리한 ‘여섯 건’에 대한 급여에는 추가근무도, 이동시간도, 이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삶이 유독 힘겨워 보이는 건 단순히 이들의 일이 고되어서가 아니다. 영화의 결말이 암시하듯, 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보는 이를 먹먹하게 만든다. 이미 플랫폼 노동자, 혹은 외주용역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도 알 수 있듯 이는 스크린 바깥의,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다. 보편화된 일상이자 불편한 진실인 리키의 삶을 통해 던져진 질문이 위와 같은 현실의 대안을 묻는 것이라면, ‘미안해요, 리키’의 물음은 감독

의 역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영화의 뒤편은 그 어느 때보다 씁쓸하다.

한편으로 리키 가족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교육’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리키 부부는 어려운 와중에도 최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지만 늘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해 힘겨워한다. 매일 밤, 늦은 시간 귀가하는 부모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어린 딸은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 리키의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간들 자신의 삶이 아버지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방향한다. 가정에서 받아야 할 애정의 결핍을 메우거나, 예전처럼 출세, 혹은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학교’는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근무시간 이외의 돌봄을 강요받고 평가의 공정성(정확히는 출세의 사다리) 가져야 할 공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비난받기 일쑤인 교사의 노동은 어떠한가. 장기적인 관점 아래 세워진 교육관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사의 노동은 리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대안을 내놓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인 이상 외면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켄 로치의 이번 질문은 유독 곤혹스럽게 느껴진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손수 제작한 책갈피로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윤성진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조선일보사에서 제정한 '2019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 호남고등학교 윤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손수 제작한 책갈피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열성을 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윤성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윤성진
호남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호남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윤성진입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내장산 단풍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윤리·도덕을 부전공하였기에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한 경험 또한 있습니다. 교직 경력은 만 30년가량 되었으며 올해로 정년퇴직을 4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손수 편지를 작성하고, 책갈피를 만들어 나누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편지와 책갈피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능력자'가 아닌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는 고교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중 제게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위형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신학기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형님'이니까 형님도 되고, 누나도 되고, 선생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 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선생님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갖가지 질문을 담은 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교해 와서 보니 선생님으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위 선생님의 손 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만약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손 편지를 쓰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3월, 저는 교단에 서게 되었고 학창시절의 그 다짐을 실천하고자 제자들에게 손 편지와 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편지와 함께 실용적인 책갈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읍의 상징인 내장산 아기 단풍잎을 채집하여 보관해 놓았다가 학생의 사진을 단풍잎과 함께 코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말 한 마디가 용기를 갖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심본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인격을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면 분명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제게 그러한 별명을 붙여준 것은 제가 책과 손 편지를 준비해 유치장에 수감된 학생을 면회하러 간 일,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학교의 궂은일을 즐겨한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호남고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봄이 올 때면 메리골드라는 꽃의 씨앗을 파종하여, 학교의 교정을 꽃으로 물들이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리어카로 흙을 운반하기도 하면서 노동을 즐겨 했는데, 그러한 일 또한 제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그러한 별명을 얻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는 법인데 어찌 제가 '천사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사 선생님은 아마 '천사'와 같은 따뜻한 스승이 되어달라는 학생들의 작은 소망이 만들어 낸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트럭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닌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에 장애인 시설이나 독거 노인 가구에 방문하여 집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개선되어 봉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봉사활동을 더욱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한파를 대비하여 독거 노인분들의 보일러 수리 또는 보온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작업의 효율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트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집수리 및 보온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데는 트럭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승용차가 아닌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꾸준히 교육봉사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봉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읍에는 '나눔의 집'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샘골 장애인 야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애인들에게 기초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글쓰기·수학·역사 등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운데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야학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헌신이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관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사고방식이나 언행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은 물론 진로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KBS 박경희 아나운서의 예를 빌리자면, 그는 선생님의 "경의야! 넌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맑고 발음이 정확하니?"라는 말을 듣고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 한마디는 그를 아나운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인정과 격려의 말 한 마디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가의 도움, 순국선열들의 헌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 수많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실

현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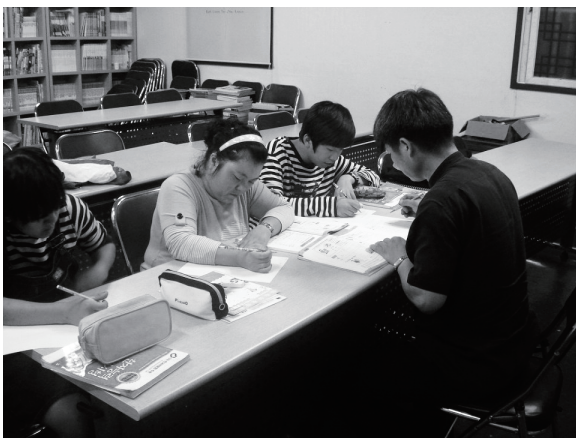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사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축소되리라는 전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성 전달이나 인격 형성 영역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선생님들은 차기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섬김의 덕을 겸비하지 못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선생님들도 보았고, 지식과 덕을 모두 갖추어 제자들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들 또한 보았습니다. 지식과 덕을 겸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둘을 겸비할 수 있다면, 겸비하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훌륭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적 능력과 덕성, 민족의식을 모두 갖춘 교육자였기에 지금까지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큰 뜻을 품은 교육자가 되어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교육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육자가 되기보다는 고매한 이상을 품은 멋진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참 스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진 기자 dksinws61@korea.ac.kr



교육과 세계



정수정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연구원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는 도덕성 높은 나라로 세계인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처럼 강한 독일의 국가 경쟁력과 우수한 사회체계는 단연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Ⅰ 학문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 교육을 선택하는 나라 독일

독일은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등 정신과 실용 학문이 모두 발달한 나라이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괴테를 비롯하여 헤겔, 칸트, 칼 막스 등 수많은 철학자의 나라이며 현대 과학의 최고봉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시조 막스 플랑크 등 과학혁명을 일으킨 과학자의 나라이기도 하다.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 바흐와 헨델,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가 베토벤이 살다간 음악과 예술의 나라도 독일이다. 독일인은 이렇듯 매우 다양한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독일은 영미의 노벨상 독식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나라로 꼽힌다. 노벨상 수상자 세계 3위의 학문의 나라이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원화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용적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교육은 1등만이 최고이며 최선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모두가 똑같이 높은 교육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아이코 유르겐(Eiko Jürgens) 교수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정답이 하나일 수는 없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정의의 실현일 것이고 교육도 그럴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른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개인이 각자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이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립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서로 다른

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며, ‘나’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독일 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다.

Ⅱ 개성에 따른 진로 선택이 가능한 독일의 학제

독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과 필요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고 교육체계 간 이동성도 많다.

독일의 교육은 모두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무교육 동안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부모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독일은 초, 중, 고, 대학까지 모두 무상 교육이고 초, 중, 고등 교육기관의 90% 이상이 공립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크다. 학교 형태가 같으면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평준화되어 있다.

독일의 초등학교는 4년제로, 졸업하면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으로 진학한다.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는 우리나라 중학교와 유사하고 김나지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형태이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주로 김나지움으로 가고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 졸업 학생은 졸업 후 주로 직업교육을 받는다. 김나지움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대학에 갈 수 없는 건 아니다. 레알슐레 졸업 후 김나지움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대학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이 교육체계의 전통적 요소로 중등 2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독일은 직업교

육을 통한 장인, 마이스터가 인정받는 나라이다. 좋은 대학 졸업장 없이 기술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업교육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적 직업교육과 직업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으로 양분할 수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이원적 직업교육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성적이 좋지 않아 김나지움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직업교육 체계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직업학교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숙련공이 되고 나서도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계속 있다. 학생이 원하면 단계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력 부족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직업교육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사다리를 놓는 셈이다.

Ⅲ 교육 성취에 사회적 배경의 영향이 큰 나라 독일

독일은 OECD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소득 및 부모의 교육 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교육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학생의 사회적 배경 차이는 일차적으로 학력 격차를 야기하고 이차적으로 학생 간 학력이 같아도 교육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쳐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 다른 수준으로 진학하게 되는 조기 분리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체제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등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김나지움은 학

교개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PISA에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 ‘공부 못하는 나라’, ‘사회적 배경이 교육 격차를 가장 크게 야기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은 이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속해서 교육격차는 감소하고 학생의 학력은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학령기 이후 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30%를 넘고 2016년 110만명 가량의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독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일의 교육을 살펴보면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이 다르므로 교육은 하나의 정답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은 개인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고하는 개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한 인재 개발은 독일 사회의 혁신을 이끌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저력이 되고 있다.

최고를 위한 지나친 경쟁은 사고를 편협하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과 함께 하는 삶을 어렵게 한다. 독일의 교육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독일이 지향하는 ‘나로 잘 살기 위한 교육’은 우리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독일 교육을 볼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 있다. 독일은 견고한 중소기업을 토대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직업교육만 받아도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의 근간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만 먼저 바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교육현장 노트



최희정

컴퓨터교육전공 졸업/단양소백산중학교

2019년 첫 발령 이후 1년간의 신규 교사 생활을 보낸, 전국에 몇 없는 농촌 기숙형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배웠던 소중한 경험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20대를 보내고, 도

시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갑작스러운 벽지 신규 발령은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다. 발령 받은 학교는 하루에 버스 단 3대가 지나가는 곳이고, 면허가 없던 나에게 20km 이상 떨어진 3곳의 학교를 순회하라는 미션은 불가능처럼 느껴졌다. 학생들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할 만큼 외딴 산 위에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고립된 중학교로의 발령은 나에게 3월 첫 주 수업 준비보다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소속된 학생들 또한 일반적인 도시학교와 비교했을 때 ‘다름’이 있었다. 화장을 하거나 교복을 줄인 학생들이 전교에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1주에서 2주 내내 부모님과 떨어져 학교라는 사회에 내던져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의 정서 발달에 교사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다행히 전교생이 100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의지가 있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가능했다. 덕분에 정말로 교사의 손길을 통해 학생들

이 조금씩 변화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 기기나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보 교사로서 지식 전달자 역할의 중요성도 통감했다. 컴퓨터는 그저 게임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바꾸고, 정보 기기를 통해 더 큰 세계를 만나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다. 물론 욕심처럼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정보 교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선생님! 메일은 어떻게 보내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깊은 반성과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막상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니 끊임없이 고칠 점이 생기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르치는 순간들 속 보람, 반성, 배움 등이 1년 동안 모여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업무적인 측면 또한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벅찼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교사가 되고서야 그것이 아주 큰 차

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고, 큰 학교의 ‘정보부’ 단위가 처리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발령 초기에는 퇴근조차 힘들었다. 정보 과목의 특성상 수업시수가 1주일에 2시간(순회학교까지 합치면 6시간) 가량으로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교사인지 행정 실무사인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을 하게 되고 업무 또한 학생들에게 환경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신규 교사로서 순회, 첫 수업, 학생들과의 첫 대면, 업무 등 염려되는 것은 많았지만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의 퀘스트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 미래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초보자이고, 교사로서 내가 경험치를 위해 할 일은 매일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인 듯하다.

소백산 자락에서 정보를 외치다

학교현장 탐방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박문여자고등학교



주태원
박문여자고등학교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제작 교육은
각종 교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로 탐색 기회를
보다 자주, 깊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박문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30년째 사회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주태원입니다. 2019년 신설된 교육과정운영부에서 학생 중심 선택교육과정 편성과 과목선택 편성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인 선진형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문여자고등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 조선인 여학생 교육에 뜻을 둔 설립자 장석우 용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가톨릭교육재단의 노틀담 수녀회가 본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의 교육철학과 노틀담 수녀회의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키우는 학교', '행복을 만드는 학교',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부터 진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제관계과정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7학년도에는 중국어중국어, 의생명과정으로까지 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송도국제도시로의 학교 이전과 동시에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으로써 교과수업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교는 2018년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언론홍보미디어 교과중점학교, 세계시민학교에 선정되어 학생 중심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다 심화하고 있으며, 과목 선택권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박문여자고등학교는 '박학어문(博學於文)'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

람(신양인)', '진리를 추구하며 창조적인 자기개발에 힘쓰는 사람(지성인)',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실천인)', '다원적 사회의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도전인)'이라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8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교과특성에 맞는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 및 협업문화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론홍보미디어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중점교과 과목을 편성하고, 미디어 관련 동아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문여자고등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교과중점학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언론홍보미디어' 분야 중점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 편성 및 이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3년간 해당 교과중점 과목(미디어콘텐츠 일반, 광고콘텐츠 제작, 문학과 매체, 사회문제탐구, 논술, 음악감상과 비평)을 22단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 동아리 5개(방송반, 영화·영상제작반, 박문기자단, 광고연구반, 박문홍보대사) 조직 및 동아리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색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교육' 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알고리즘 기반 유튜브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청소년 미디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홍보미디어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진흥재단, 인천 연수구 등)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접목시킨 특강을 시범운영 하는 등 미디어 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 견고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9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나타나 교과중점학교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제작 교육은 각종 교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로 탐색 기회를 보다 자주, 깊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이 지니는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은 1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선정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 수에 따라 학급 구성과 수업 시간 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홍보미디어 중점과목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일반', '광고콘텐츠 제작'은 사실 전문계Ⅱ에 해당하는 과목이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담당 교사를 선정하거나 강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재학 중 자신의 진로가 변경되어 중점학급 또는 중점과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년 또는 학기 종료 후에도 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는 보다 세심

한 진로·진학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진로희망 관련 교과과정 개설 확대 또한 활발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여자고등학교는 이러한 요청을 학교 교육과정에 발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홍보미디어중점과정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희망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습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학교 평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문에서 본교는 상위 평가를 받음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와 미래의 학교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성과 활동중심 수업을 위한 교사 연구,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등 교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자발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위와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서의 한걸음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여러분께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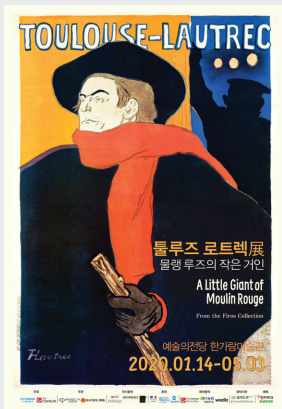
안수진 기자 dksinws61@korea.ac.kr



문화 탐방

물랭 루즈의 작은 거인, <툴루즈 로트렉 展>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 그래픽 아트 선구자로 손꼽히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로트렉의 국내 첫 번째 단독전으로, 전시작품 모두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만큼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로트렉의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속으로 다 함께 떠나 볼까요?



<툴루즈 로트렉 展>

- 전시장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
- 전시기간: 2020.01.14.(화)~2020.05.03.(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 관람요금: 일반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
- 관람문의: 070-4104-1800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후반, 예술의 거리 몽마르트와 밤 문화의 상징 물랭 루즈 등을 무대로 활동했던 작가이다. 당시의 수집가들이 벽에 붙은 그의 포스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벌일 만큼, 그의 포스터는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의 포스터는 지금까지도 디자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부르주아적 전통 방식을 거부하는 한편, 고전적인 회화 기법을 훨씬 뛰어넘어 솔직함과 담백함을 보여주는 그의 화풍은 관객들의 시선을 한번에 사로잡는다.

| 로트렉, 그의 고독한 생애

툴루즈 로트렉은 프랑스 남부 알비(Albi)에서 백작의 작위를 가진 아버지와 그의 사촌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로트렉 가문은 남 프랑스의 최고 부자로 불릴 만큼 권세 있는 가문이었으며, 이들은 재산이 세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자행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친혼의 폐단으로 로트렉은 '농축이골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된다. 이 병은 뼈가 잘 부스러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로트렉 또한 뼈가 너무 약해 결국 지팡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얇은 데 덮친 격으로 14살, 15살 무렵 연속으로 왼쪽과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장애가 더욱 심해져 다리는 자라지 못한 채 상체만 자라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은 주로 승마, 사냥 등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다. 로트렉의 아버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진 장애로 인하여 취미를 공유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그를 없는 자식 취급하였고,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생을 보내야만 했다. 한편, 로트렉은 '말(馬)'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들 가운데 어릴 적에 창작된 작품들은 주로 말 위에 누군가가 타 있는 모습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말을 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어 그로부터 관심 받고, 칭찬 받고 싶어 하는 어린 로트렉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갈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또한, 말을 타고 달리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자유로운 말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해소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미칠 정도로 말을 좋아했지만 말을 타지는 못했다."

그의 첫 번째 스승은 청각장애를 가진 동물 전문 화가였다. 스승 본인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그는 로트렉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커스를 보여주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로트렉 초기 그림 가운데 동물 그림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스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스승의 화실에서는 인생의 돌도 없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 로트렉의 드로잉 가운데 '환자 구속복을 입은 반 고흐'라는 작품은 그와 고흐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가 얼마나 장난기 어린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로트렉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장난기는 작품에까지 투영되어 그의 작품 곳곳에는 작은 재미들이 숨겨져 있다. 그의 삶이 슬프다고 하여 그의 작품까지 슬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기 이면에는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남이 자신을 놀리기 전,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비하하였다고 한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상처 받는 것이 두려웠던 로트렉이 고안한 일종의 방어 수단이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로트렉을 그린 초상화와 로트렉이 자신을 그린 자화상 사이에 굉장한 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스스로에 대한 상처가 매우 깊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압생트'라는 아주 독한 술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한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 몽마르트의 뒷골목을 누비는 관찰자

세 명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뒤, 그는 귀족 사회로부터 벗어나 몽마르트로 향한다. 당시 몽마르트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모이는 소외된 곳이었다. 그렇다면 귀족이었던 로트렉은 왜 몽마르트로 향했을까. 귀족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로트렉을 외모로 평가했다. 하지만 몽마르트의 사람들은 그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의 장애에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로트렉은 이곳에서만만큼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로트렉은 몽마르트에 위치한 댄스홀인 '물랭 루즈'로 향한다. 위의 그림은 물랭 루즈로 향한 로트렉이 그려낸 첫 번째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신사모

를 쓴 사람들을 그림자로 표현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래 물랭 루즈는 귀족과 하층민이 함께 섞여 노는 것을 지향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귀족들이 체면을 중시한 나머지 물랭 루즈에 오는 것을 꺼리자 이것을 눈치 챈 로트렉이 귀족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당신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니 체면 차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물랭 루즈에 발걸음 하는 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 포스터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MOULIN ROUGE'라는 글자를 담아내기 위해 로트렉은 대문자 'M'을 크게 써서 공통 두음으로 삼고 그 옆으로 'OULIN ROUGE'를 세 번씩 병기하는데, 이와 같은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로트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의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기하게도 로트렉이 포스터로 그려낸 인물들은 모두 순식간에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세심한 관찰력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는 대상의 특징을 아주 잘 포착해 내어 이를 포스터로 제작해 냈다. 로트렉

덕분에 일약 스타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카바레 스타 '제인 아브릴(Jane Avril)'과 샹송 가수 '아리스티드 브뤼앙(Aristide Bruant)'이 있다. 제인 아브릴을 그린 포스터를 보면, 곧바로 그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춤을 출 때 다리가 매우 높게 올라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아리스티드 브뤼앙을 그린 포스터에서는 붉은 스카프를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터를 보다보면 로트렉 포스터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색 사용을 최소화하였다는 것과 그 형상을 단순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4초 안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포스터를 각인시키기 위한 로트렉만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 추한 것이 아름답다

그는 몽마르트 유곽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쉬는 모습, 카드놀이 하는 모습,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화장을 하는 모습 등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모두 지켜본 뒤 이를 그림으로 그려낸다. 로트렉의 '엘르(Elle)'라는 석판화 연작은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로트렉은 왜 이 유곽의 여성들을 모델로 삼았을까. 당시 매춘부들은 하층민 중의 하층민으로서 평상시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소외된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로트렉은 평범하고 또 평범한 그들의 일상을 그려냄으로써, 그들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나타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상처 받아 온 그의 삶을 고려할 때, 로트렉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리라 생각된다.

로트렉은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층민의 일생을 그려내어 예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실제로 로트렉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로트렉 이후에는 많이 창작된다. 그는 137cm에 불과했지만 그가 미술사에 남긴 업적은 이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진정 '물랭 루즈의 작은 거인'이었던 것이다.

전시장을 이동하다보면 꽤 높은 곳 벽면에 로트렉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장애로 인해 키가 작았던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올려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생을 장애로 고통 받았을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도 같다. 비록 그는 37세가 채 못 되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재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물랭 루즈의 작은 거인 로트렉. '인간은 추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끔찍이도 사랑했었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작품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